

87년 전통의 장수기업 삼양사

주부들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 큐원, 설탕, 밀가루를 비롯한 식품소재 회사로 알려진 기업 삼양사. 그러나 삼양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기업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화학, 의약사업부문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 패취형 금연보조제를 대표하는 니코스탑 이 삼양사 제품인 것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듯싶다. 향암제, 패취제, 의료용구 등을 생산하는 의약사업부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자재용 섬유, PET병, PET재활용사업, 이온교환수지 등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화학사업부문 등 삼양사는 8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기업이다. 계열사 중에는 패밀리레스토랑 세븐스프링스, 베이커리 카페인 카페 믹스앤베이크 등의 외식사업부문도 있다.



화학식품 의약3대 핵심사업 체계적으로 알릴 것

삼양사의 그룹 홍보팀을 맡고 있는 오원정 팀장은 삼양사의 사업들을 제대로 잘 알려야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한다.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음에도 식품회사 이미지와 너무 강해 간혹 소비자오인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 팀장은 삼양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정립해 다양한 홍보, 광고활동을 통하여 삼양의 Reputation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 2004년 창립 80주년을 기해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이란 슬로건과 함께 새롭게 CI를 변경하고, 화학, 식품, 의약, 신사업 부문을 핵심성장 사업군으로 선포, 기업경쟁력을 키워왔다. 올해는 2015년을 목표로 하는 비전 선포의 첫 해로 화학, 식품, 의약의 3대 핵심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혁신은 물론 기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획기적인 미래성장의 플랫폼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 가운데 홍보팀은 사내외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삼양의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



오원정 홍보팀장

1987년에 입사해 영업과 마케팅부문을 두루 거쳐 올해 6년째 홍보팀을 맡고 있는 오원정 팀장. 사내에서는 오 팀장이 홍보부문에 마케팅적 요소를 접목시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 팀장이 홍보팀과 공유하고 있는 슬로건 '콘텐츠는 풍부하게 알은 수월하게'처럼 홍보팀원들은 각자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오 팀장은 이를 'info share'란 말로 함축하며 직장 업무에서도 나눔을 통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삼양사 홍보팀은 크게 언론홍보, 사내커뮤니케이션, 디자인광고 부분으로 나뉜다.

(좌부터) 관측물 제작 및 회계사무를 맡고 있는 박소현 사원, 홍보팀을 총괄하고 있는 오원정 팀장, 디자인 및 기업PR 광고를 맡고 있는 김수진 과장, 홍보전략 수립을 비롯해 행사기획, 언론관리를 맡고 있는 이명주 부장, 사보 및 간행물 출판을 맡고 있는 조리미 과장,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오현주 사원, 이명주 부장과 함께 언론홍보를 맡고 있는 안승희 사원



삼양사 뉴비전 목표에 맞춰 홍보부문 꽃 피울 터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삼양사의 광고에서는 이런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 오원정 팀장은 "큐원 브랜드의 제품광고를 제외하고는 기업이미지 광고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광고효과에 따른 타겟팅과 광고효율성을 따져 보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식품부문에 식품소비재BU를 신설, 큐원 브랜드의 제품광고를 맡게 하고 홍보팀에서는 기업이미지 광고만을 전담하고 있다. 신설된 식품소비재BU는 기존 소재기술을 활용, 삼양사의 대표상품인 홈메이드제품의 상품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업계 최초로 호떡믹스를 출시하며 홈메이드제품 시장을 형성한 삼양사는 이후 찰호떡믹스, 와플믹스, 해물과전, 찰수수 부꾸미믹스 등 소비자 입맛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홈베이킹 프리믹스의 제품라인을 구축했다.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큐원의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qonemoms>)는 작년 2월 설립 이후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삼양사는 카페 회원들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큐원 홈메이드 Festival'을 5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기반을 강화하여 SNS 영역까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오원정 팀장은 "올해는 2015년을 목표로 한 뉴비전 선포에 맞춰 다시 한번 홍보부문을 활짝 꽃피울 계획"이라며 지난 2004년의 80주년 때 못지않은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삼양사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 87년간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기업"이라며 100년 기업을 바라보는 삼양사의 제도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KA** 이수지 기자 susie@kaa.or.kr